

蒐集地域에 따른 襄荷의 生育特性

崔成圭, 尹敬源,

順天大學校 自然科學大學 韓藥資源學科

Growth Characteristics of *Zingiber mioga* ROSC. by Collective Area

Seongkyu Choi and Keongwon Yu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Resourc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540-742, Korea.

襄荷는 생강과에 속하는 숙근성 다년초로서 아시아 열대지방이 원산지로 우리나라의 전국각지의 野山이나 들에 분포되어 있다. 襄荷는 사용부위에 따라 食用과 藥用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花器를 食用으로 이용하고 일본에서는 軟化시킨 줄기와 花器를 菜蔬用으로 이용하고 있다. 藥用으로는 地下莖을 이용하는데 地下莖에는 zingiberene, zingirone, shogaol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鎮痛, 健胃, 祛痰劑로 處方되고있으며, 가을철에 地下莖을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 韓藥材로 사용한다.

襄荷의 植物學的 形態는 草長이 40~100cm정도이며, 잎은 披針形 또는 긴 橢圓形이고 길이 20~35cm, 폭 3~6cm로서 밑 부분이 좁아져서 葉柄처럼보인다. 꽃은 황색으로 8~10월에 피고 花莖은 地下莖 끝에서 鱗片葉으로 싸여 있다. 襄荷는 종자가 잘 맺히지 않기 때문에 地下莖을 번식의 수단으로 이용한다. 地下莖은 生薑보다 가늘고 잎과 땅위 줄기는 生薑보다 잘 발달되어 있으며 多肉質로서 紫黃色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襄荷는 주로 오래된 寺刹 주변이나 古家 등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재배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시험은 전남지역에 분포된 襄荷를 蒐集하여 特性을 비교한 후 우량계통을 선발하고자, 主要 寺刹 주변과 自生地를 중심으로 구례, 담양, 완도, 장성, 진도, 함평에 분포된 襄荷 12종을 蒐集하여 그 特性을 비교 검토하였다.

襄荷의 出現始는 5월 上旬이었으며, 出 始는 7월 下旬으로 特性이 거의 비슷하였다. 또한 食用으로 이용되는 花 의 收量은 장성군 백암리에서 自生하는 蒐集種이 栽

植 2년째에 350~400kg/10a을 생산 할 수가 있어서 가장 增收되는 系統으로 思料되었으나 有意性이 인정되지 않았다.